

“이웃사랑 실천하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기뻐요”

익산시 남중동 동일한우촌, 착한가게 10호점 가입으로 나눔 동참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경진, 황의성)는 20일 착한가게 10호점에 가입한 동일한우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탄생한 착한가게 동일한우촌(대표 최선영)은 북부시장 주차장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한우가 주 재료이지만 삼겹살과 목살 육회비빔밥, 사골갈비탕, 떡국 등을 요리하는 맛집이다.

동일한우촌(대표 최선영)은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영광”이라며,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쓰여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는 현관전시실과 함께 주변 상인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주고 착한가게, 착한가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 시간도 가졌다.

황의성 공동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기부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뿌듯하며 이런 뜻깊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경진, 황의성)는 20일 착한가게 10호점에 가입한 동일한우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소장 서정분)는 20일 관내 아동·청소년지도자 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함양시키고 청소년지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1부는 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실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점점 더 늘어가는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발생원인, 대처방법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져 견진한 직장문화 조성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폭력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숙지해야 할 지침과 관리, 정보유출에 대한 다양한 피해사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졌다.

2부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힐링 타임으로, 바쁜 일정을 잠시 벗어나 덕유산을 등반하면서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33개 동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전주시는 최근 시청 청년상황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33개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방재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임원들의 임기마저 새로이 3년간 방재단을 이끌어 갈 단장 및 임원진을 선출해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재해위험 요인에 대해 자체체계의 행정력만으로는 전부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간담회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전 접점, 예찰, 조기 현장 대응 등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방재단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교육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굿데이 업무협약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20일 근로장애인 사회성 회복을 돋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굿데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들이 직무로 인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심신타파’ 프로그램을 4월 중 진행해 직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신체적·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지역 내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상황 시 적절한 지원으로 근로장애인의 정신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시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군산시 소룡동행정복지센터는 20일 한국총식봉사나눔회 군산지부(지부장 정이완)의 재능기부를 받아 관내 어르신과 아동 및 복지시설 이용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식사대접과 복지사각지대 밭불 관련 복지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돼 1석 2조의 행사 효과를 거뒀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지역주민을 위해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어 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복지 제도도 안내 받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이완 지부장은 “작은 정성에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나 나눔 행사이에 힘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옥서면, ‘happy Food 사업’ 협약

군산시 옥서면은 옥봉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지원하고 지역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일 153부대찌개, 옥봉초교, 옥서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happy Food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53부대찌개에서 옥봉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햄버거 등 간식(연 2백만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되어 민관협력 활성화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석 옥봉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균 옥서면장과 나신환 협의체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옥서면의 농촌커뮤니티를 조성해 더욱 살기 좋은 옥서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고창서, 주민공감 인권보호 실천방안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최근 인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내·외부 고객의 인권보호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외부 고객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각 지·파출소는 물론 교통, 수사부서 등 대민 접점 부서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 비위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원 개개인이 바르게 행동하기를 강조하였다.

박주연 경위는 “피해자,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듯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내부고객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성재 서장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실천할 때 주민에게 진정한 인권경찰로 다가갈수 있음을 알고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 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